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페스타 계획(안)

1. 배경 및 필요성: 긍정적 양육 확산을 위한 부모 교육 접근성 강화

○ 영화로 여는 부모교육, 누구나 쉽게 배우는 긍정 양육

- 출산율 저하, 육아 스트레스 증가, 아동학대 같은 사회적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부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자녀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은 부모의 양육 능력과 직결되며, 이에 정부 정책에서도 부모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¹ 그러나 **현행 부모교육은 의무가 아닌 선택이라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으며, 정작 교육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접근성이 낮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 세이브더칠드런이 실시한 「부모 교육 인식 및 경험조사(2024)」조사에 따르면, 부모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높은 인식에 비해 참여율은 낮은 실정이며²**, 응답자들은 '교육 내용이 실제 아이를 훈육하는 상황에서 적용하기 어려움(56.0%)'을 부모 교육 불필요의 이유로 꼽아 가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더불어 **부모 교육 활성화 방안으로는 '부모 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62.8%)'**이 가장 높은 응답을 얻어, 시간 공간의 제약을 줄이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최근에는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이론적 지식만 제공하는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부모의 배경(연령, 교육수준, 문화적 차이 등)이나 시간적, 지리적 제약 등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콘텐츠 개발이 요구됨. 이와 관련해 상담 및 심리치료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영화치료'³기법은 문자, 그림, 음성이 결합된 방식으로 정보 전달력이 높고, 현대적 감수성과도 부합하는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음.** 이런 기법을 부모교육에 접목함으로써 몰입감과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확대하고자 함.

○ 긍정 양육 사각지대 해소, 지역 타겟팅을 통한 지역주민 중심 확산

- 세이브더칠드런에서는 아동권리 기반의 차별 없는 긍정적인 양육문화를 확산을 위해 2022년부터 전국 단위의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컨퍼런스'를 개최함. 이를 통해 긍정적인 양육 인식 확산과 더불어 도움이 필요한 양육자들에게 실질적인 부모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컨퍼런스에는 2022년 847명, 2023년 1,148명, 2024년 1,476명이 참여하였으며, 2024년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균 87.7%가 '만족' 이상으로 응답함. 또한 참여자 90% 이상이 이후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교육 효과성과 확산 가능성이 높음을 파악함.

- 부모교육은 모든 양육자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나 **아동학대 발생률이 높은 지역, 양육 스트레스 지표가 높은 지역 등 특정 지역에서는 교육 접근의 불균형이 더욱 심각함.** 이에 데이터 기반 지역 분석을 통해 교육 수요가 높은 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양육자를 포함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독려하여 긍정 양육 인식 제고**하고자 함.

1 제 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에서는 아동권리 존중을 위한 부모교육 근거 및 강화 방안 제시하였고 제 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23~2027)에서는 보호자 교육의 법적 근거 마련 및 대면·비대면 병행 교육 추진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2 국민(성인)의 97.5%가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자녀를 둔 부모(첫째 자녀 만 15세 이하) 중 96.1%가 부모교육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그러나 자녀가 있는 부모 중 실제 부모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34.1%에 불과함.

3 영화를 활용해 정서적 심리적 문제를 치유하는 심리치료 기법으로 영화 속 캐릭터와 주제를 통해 감정을 탐구하고, 통찰을 통해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수용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

- '22~'24 컨퍼런스 평가 내용 중 '진행 시간이 짧아 시간을 늘려달라는 의견 및 직장인들을 수용 가능한 시간대의 진행을 요청'하는 참여자 다수의 의견이 있었음. 따라서, 접근성(시간적, 지리적 제약)을 고려한 시간대 및 장소 선정과 더불어 **강연과 연계된 다양한 활동도 함께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참여와 긍정 양육 인식 제고,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부모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고자 함.**

• 주요 변경 내용

'24년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컨퍼런스	'25년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페스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대: 평일 오전(10시~12시) - 참여방법: 사전 교육 신청 - 대상: 성인(양육자, 양육에 관심있는 대중 등) - 진행방식: 온/오프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대: 주말 오후(13시~16시) - 참여방법: 사전 교육 신청 및 당일 활동 참여 - 대상: 성인+아동(가족단위활동 참여) - 진행방식: 오프라인(영화* 감상 후 강연) *24 아동권리영화제 수상작 '콘' 상영 예정 - 비고: 지역주민 긍정 양육 인식 제고 및 참여를 위한 가족단위활동 및 양육 상담소 운영 예정

2. 목적 및 목표

가. 목적

- 부모의 양육 능력이 자녀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부모-자녀 관계 및 정서 지표가 낮고 아동 학대 발생률이 높은 지역을 우선 타겟팅하여, **영화라는 친숙한 매개를 활용한 부모교육**을 통해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가족 단위 참여 활동 등을 통한 **긍정적 양육 인식을 지역사회에 확산**하고자 한다.

나. 목표

- **부모교육 문턱 낮추기:** 영화콘텐츠를 활용하여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긍정 양육 프로그램 제공
- **공감과 참여 이끌기:** 부모교육을 통한 공감대 형성 및 참여 활동 지원으로 긍정 양육 실천 도모

3. 세부 내용

가. 2025년 페스타 개요

- 1) **행사명:** 세이브더칠드런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페스타
 - **슬로건:** 영화로 배우는 긍정 양육,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
- 2) **개최 지역:** 4개 지역(경인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서부지역본부, 남부지역본부)
 - [참고] 개최 지역 선정을 위한 조사 자료 (* 1순위: 경기, 2순위: 충남, 3순위: 전북)

항목	권역별
SCK 「아동 삶의 질 6차 연구(2023)」 1)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 2) 아동의 긍정적인 감정 3) 부모의 긍정적인 감정 4) 부모의 부정적인 감정 ⁴	1) 충남 , 전남 상대적 하위권 2) 충남 , 서울 상대적 하위권 3) 전북 , 제주 상대적 하위권 4) 전북 , 강원 상대적 상위권

⁴ 양육 스트레스와 분노는 서로 상호 역동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양육스트레스와 분노에 관한 연구에서 양육자의 분노 표현 방식과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분노 조절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남.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주요 통계(2023)」⁵ 1)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아동학대 의심사례) 2) 사망사례 지역별 발생현황	1) 경기>서울>인천>부산>경남> 충남 >울산>전남,경북>대구>대전, 전북 >강원>충북>광주,제주>세종 2) 경기,인천>울산>경남>서울,충북,전북,대전> 충남 ,제주,광주,대구,부산(*0명인 지역 제외)																																				
행정안전부 「시도별 아동인구 현황(2024)」	<table border="1"> <tr> <td>서울특별시</td> <td>1,056,861</td> <td>강원특별자치도</td> <td>187,323</td> </tr> <tr> <td>부산광역시</td> <td>395,045</td> <td>충청북도</td> <td>213,611</td> </tr> <tr> <td>대구광역시</td> <td>313,500</td> <td>충청남도</td> <td>299,234</td> </tr> <tr> <td>인천광역시</td> <td>416,312</td> <td>전라북도</td> <td>224,838</td> </tr> <tr> <td>광주광역시</td> <td>209,921</td> <td>전라남도</td> <td>228,107</td> </tr> <tr> <td>대전광역시</td> <td>199,895</td> <td>경상북도</td> <td>314,754</td> </tr> <tr> <td>울산광역시</td> <td>162,731</td> <td>경상남도</td> <td>452,106</td> </tr> <tr> <td>세종특별자치시</td> <td>85,511</td> <td>제주특별자치도</td> <td>105,247</td> </tr> <tr> <td>경기도</td> <td>2,011,334</td> <td></td> <td></td> </tr> </table>	서울특별시	1,056,861	강원특별자치도	187,323	부산광역시	395,045	충청북도	213,611	대구광역시	313,500	충청남도	299,234	인천광역시	416,312	전라북도	224,838	광주광역시	209,921	전라남도	228,107	대전광역시	199,895	경상북도	314,754	울산광역시	162,731	경상남도	452,106	세종특별자치시	85,511	제주특별자치도	105,247	경기도	2,011,334		
서울특별시	1,056,861	강원특별자치도	187,323																																		
부산광역시	395,045	충청북도	213,611																																		
대구광역시	313,500	충청남도	299,234																																		
인천광역시	416,312	전라북도	224,838																																		
광주광역시	209,921	전라남도	228,107																																		
대전광역시	199,895	경상북도	314,754																																		
울산광역시	162,731	경상남도	452,106																																		
세종특별자치시	85,511	제주특별자치도	105,247																																		
경기도	2,011,334																																				
컨퍼런스 진행 현황(2022~2024)	<table border="1"> <tr> <td>2022</td> <td>서울, 전주, 인천, 대구, 김해, 부산</td> </tr> <tr> <td>2023</td> <td>서울, 화성, 광주, 순천, 대전, 울산, 부산</td> </tr> <tr> <td>2024</td> <td>서울, 수원, 아산, 여수, 창원, 대구, 괴산, 경남, 울산</td> </tr> </table>	2022	서울, 전주, 인천, 대구, 김해, 부산	2023	서울, 화성, 광주, 순천, 대전, 울산, 부산	2024	서울, 수원, 아산, 여수, 창원, 대구, 괴산, 경남, 울산																														
2022	서울, 전주, 인천, 대구, 김해, 부산																																				
2023	서울, 화성, 광주, 순천, 대전, 울산, 부산																																				
2024	서울, 수원, 아산, 여수, 창원, 대구, 괴산, 경남, 울산																																				

3) 행사 일시: '25년 11월 22일 (토) 13:00 ~ 16:00

4) 참여 대상: 양육자 및 긍정 양육에 관심있는 완주군민 300명

⁵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는 부모에 의한 발생 건수가 22,106건(85.9%)으로 가장 높았고, 대리양육자 1,874건(7.3%), 타인 846건(3.3%)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에 의해 발생한 사례 중, 친부에 의해 발생한 사례가 12,414건(48.2%), 친모가 8,921건(34.7%)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6) 세부 계획(안)

- 직장인 등 평일 시간대 참여가 어려운 양육자와 지역주민 참여를 위해 주말 오후시간대에 참여형 팝업 행사를 진행하고자 함.
- 기존 컨퍼런스 형식에서 벗어나 영화를 매개로 양육자가 스스로 감정 탐색 및 통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되, 2024년 아동권리영화제 수상작인 '콘'을 활용하고자 함.

▷ 진행 내용

구분	진행 시간	활동 내용	참여인원
오프닝 메인 프로그램	13:00~13:10(10')	- 오프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희태 완주군수 축사 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 총장 환영사 	사전 신청자 200명
	[1부] 영화 속 장면으로 마주하는 아이의 마음		
	13:10~13:30(20')	-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영화제 수상작 '콘' 상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와 긍정적 양육 방식 고민할 수 있는 시간 마련 	
	13:30~14:00(30')	- SCK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백지은 슈퍼바이저 강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화 속 주요 장면을 통한 긍정 양육 및 '따뜻함과 구조화' 실천방안 탐색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건강한 소통 ※ 별도 CFS운영	
	[2부] 행복한 부모로부터 자라는 아이들		
	14:00~14:30(30')	- 전문가 강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크콘서트 참여 <u>패널② 김윤나 소장</u> 강연 	
14:30~15:30(60')	- 힐링 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크콘서트 참여 <u>패널③ 부부천재 (커피소년 & 제이래빗 혜선)</u> 공연 - 토크콘서트(감정과 고민 나누기) ⁶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육 고민 공유 및 질의응답 (사전 질문 취합 및 실시간 고민 청취) 패널 섭외 ▷ 패널① : 공아키 백지은 슈퍼바이저 ▷ 패널② : 김윤나 소장 ▷ 패널③ : 유지인 감독 		
부대 프로그램	13:30~16:00 (상시 운영)	- 가족단위 참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가지 말상처 전시 및 가랜드 만들기 영화 '콘' 상영(상시) 및 지구본 만들기 - 양육상담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육플래너, 권리세이버(공아키 전문 강사) 섭외를 통한 육아 관련 상담 제공 - CFS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연 참여자 자녀 대상 운영 	당일 방문자 100명
합 계			300명

*세부 내용 및 순서는 해당 지역본부 담당자와 논의 후 변경될 수 있음.

⁶ 사전 홈페이지를 통한 참여자 질문 받는 과정 필요. 해당 질문을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프로그램 기반하여 응답

▷ 진행 일정(안)

	메인프로그램 ()	가족단위 참여 활동 ()	교육 및 상담소 운영 ()
13:00	오프닝 영화 '콘' 상영		활동 3
14:00	공아키 슈퍼바이저 강연 전문가 강연(아동발달, 심리 등)	활동 1 100가지 말상처 전시 및 가랜드 만들기	활동 2 영화 '콘' 상시 상영 및 지구본 만들기
15:00	토크콘서트 및 공연		활동 4 아동권리교육 (강연 참여자 자녀 대상)
16:00	리워드 제공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양육 상담소 운영 (공아키 전문 강사 섭외)

▷ 사회자 및 패널





구분	섭외 리스트
사회자	- 전주 MBC 이충훈 아나운서
패널 ①	-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백지은 슈퍼바이저
패널 ②	[아동 발달/심리, 교육, 소통 분야 전문가] - 양육자 정서적 지지 및 양육 관련 고민에 대한 질의응답 1) 김윤나 소장: 말마음 연구소 소장
패널 ③	[인플루언서] - 실제 양육 경험을 공유하며 참여자들과 공감대 형성 1) 유지인 감독: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영화제 수상작 '콘' 감독 [힐링 공연] - 토크콘서트 진행 전 공연 진행 및 토크콘서트 패널 참여 1) 부부천재(커피소년 & 제이래빗 예선): '부부천재' 채널 운영, 가수 제이래빗, 커피소년

/끝/

[별첨 1] 영화 '쿤' 주요 장면을 통한 메시지 전달

-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따뜻함과 구조화' 활용하여 올바른 소통 방식 제안

※ 주요 장면 속 주요 문제가 무엇인지, 해당 연령대의 아이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해당 상황에서 따뜻함과 구조화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자문 후 보완 작성 필요

 <p>(아빠) 아이스크림 또 묻혔어?</p>	<p>[주요 장면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빠: 아휴, 지지, 묻히지 말라니까. 너 다음에도 묻혀오면 아빠 진짜 화낸다. 이거 안 지워질 것 같은데... - 아빠 2: 아이스크림 또 묻혔어? 안 흘리게 컵에다 먹으라고 했잖아. 아 묻으면 지우기 힘든데 이거.
 <p>왜 쓰레기를 뒤집어쓰고 있어?</p>	<p>[주요 장면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마: 뭐 하는 거야, 왜 쓰레기를 뒤집어쓰고 있어? - 민우: 쓰레기 아니야. 가면이야. 내가 만들었어 - 엄마: 베란다에 갖다 놔. 지저분해. 내일 아파트 쓰레기 버리는 날이니까 그 박스 베란다에 가져다 놔.
 <p>(엄마, 아빠) 생일 축하해 아들!</p>	<p>[주요 장면 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마, 아빠: 생일 축하해 아들! - 민우: (눈물) - 엄마: 민우야, 왜 울어. 놀랐지. 미안해. 아후 그러니까 하지 말자고 했잖아.
 <p>(민우) 몰라</p>	<p>[주요 장면 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빠: 민우 인스턴트 그만 먹어야 된다고 했잖아 - 엄마: 이 정도는 괜찮아. 맛있지 민우야, 왜 이렇게 못 먹어? 제일 좋아하는 치즈 버거인데? - 민우: 몰라 - 아빠: 민우 갖고 싶은 거 없어? - 민우: 없어, 엄마 아빠는 못 사 - 아빠: 민우 보나 마나 뻘하지 뭐. 핑키 인형 갖고 싶지, 엄마 아빠 사줄 수 있어 - 민우: 아니, 핑키 구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야